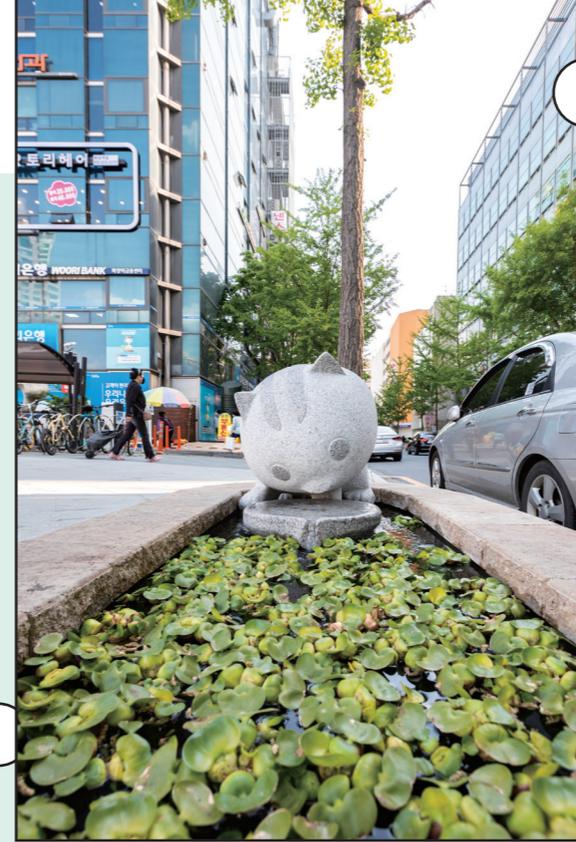




도시 소(小)생태계 물순환 시스템

빗물에서 지하수까지, 무심코 흘려보내는 물 자원이 아이디어와 만나 우리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에도 일조하고 있다. 고양시 곳곳의 지구를 살리는 착한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소(小)생태계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간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 서식공간을 말한다.



STEP 2

고양이 웅달샘

화정문화광장을 가본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고양이 고양이 캐릭터를 형상화한 '고양이 웅달샘'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고양이 웅달샘은 가로수 식재 구간 내에 위치한 도심 속 자투리 습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해 만든 이 웅달샘은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토양으로 지하수 재유입을 유도한다. 고양고양이 석상에서 지하수가 나오는데,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의 생육 환경도 지켜볼 수 있다.

위치 덕양구 화정문화광장



도리가 시원해졌어요~



STEP 1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물순환 시설인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은 하루에 배출되는 356t의 지하수를 활용한다. 지하철 3호선 화정역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살수 노즐이 도로 노면에 지하수를 분사하여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춘다. 지난 2020년 4월 도입한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은 봄·가을철 일 1회, 여름철 일 4회, 폭염 특보 발령 시 일 최대 10회까지 가동된다.

위치 덕양구 화정로 60 인근



STEP 3

빗물저금통 보행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앞 가로수 잔디는 얼핏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비밀을 숨기고 있다. 빗물저금통과 토사층, 잔디매트로 구성된 잔디화단은 빗물의 유출을 줄이는 한편, 화단에 물을 자동으로 공급한다. 빗물을 담아두기만 하던 기존 물탱크 방식과 달리 저장과 순환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빗물저장 용기는 페비닐과 페플라стик을 재활용하여 만듦으로써 자원순환의 의미를 더해준다.

위치 덕양구 토당로 83

